

# 서문

yas

나는 명백하게 고백한다. 나는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나에게 사회주의는 모든 것이다. 거의 종교이다. 나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주장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주장은 무가치한 나의 생애에서 최후의 호흡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명백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자본주의 체제는 중앙 은행이 조작하는  
불태환 화폐가 아닌 건전한 화폐를 근간으로 합니다.

자본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주의는 중앙 은행의 신용 창출이 아닌  
저축에 의해 결정되는 자발적인 이자율을  
근간으로 합니다.

임금 통제, 가격 통제, 보호주의, 기업 보조금,  
국제 무역 관리, 복잡하고 처벌적인 법인세,  
군대에 대한 특권, 정경유착,

기업간 M&A 및 주식 판매에 관한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이 지배하는 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 론 폴

”

서론

의회제도가 나타난 이래 이 의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헌

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 반동과 왕정복고의 토양에서, 즉 의회주의와의 투쟁에서 패배한정치적 반대자측에서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다음에 실제적 경험이 쌓여가면서 당파적지배의 결함들이 인정되고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끝으로 또 하나의 원리적인 측, 즉좌익적 급진주의 측으로부터의 비판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에는좌우로부터 경향들이, 즉 보수주의적, 생디칼리스트적 그리고 무정부주의적인 주장,군주주의적, 귀족주의적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견해가 모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상황의 가장 간결한 요약은 1922년 11월 26일의 이탈리아 상원에서 상원의원 모스카가무솔리니 정부의 내외정책에 대해서 행한 연설에 보여진다. 그것에 따르면, 의회제도의결함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둘째는 다소 은폐된 관료적 절대주의(un assolutismoburocratico), 끝으로 생디칼리스트적 지배형태, 즉 오늘날의 의회의 개인주의적 대표제를 노동조합의 연합체에 의해서 대체하는 것이다. 모스카는 마지막의 것을 의회조직에대한 최대의 위험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디칼리즘이란 것은 단순한 교의나감정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경제조직에서 발생하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베르텔레미는 그의 『행정법론』(H. Berthélemy,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의 최근 판(제10판)의 서문에서 이 문제를 논한 때에 바로 생디칼리즘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한다. 그는 의원이 권력의 혼란이라는 위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당파관리(Parteienwirtschaft)를 포기하고 내각의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충분하리라고 믿고 있다. 더구나 지방분권주의(Regionalismus)에 대해서도 산업주의(Industrialismus) (즉 경제생활의 방법을 정치에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국가에 대한위험을 인정하는데, 한편 생디칼리즘에 대해서는 「권력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돌아갈 때, 그리고 또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통제력이 맡겨질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좋은 관료주의적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매우 당연한데, 그 경우 정부의모든 권위는 지배되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민주주의적 주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독일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직능대표적인 관념과 경향들이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전통에 대해서는 현대 의회주의



에 대한 비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나. 그밖에 아주 최근에 이르러, 특히 1919년 이래 쌓여온 일상적 경험들에 의거하는 의회주의 비판의 문헌이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팜플렛이나 신문 논설에서 의회주의의 뚜렷한 결함이나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즉 당파의 지배, 공정하지 못한 인사정책, 「아마추어 정치」, 끊임없는 정권의 위기, 의회 연설의 무목적성과 천박함, 의회의 예의 범절의 수준저하, 의사방해에 의한 의회해산의 방법, 의회주의 자체를 모욕하는 급진적 반대파에 의한의원의 특권들 (Immunitäten und Privilegien)의 남용, 의회의 위엄을 손상하는 일당의 사용, 부정한 의사당점거 등이 그것이다. 그 자체로서는 매우 이전부터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관찰에서 나오는 인상도 점차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즉 비례대표제와 그 명부제도는 선거인과 의원간의 관련을 단절하며, 따라서 당파적 구속이 불가결한 수단이 되고, 이른바 대표의 원칙 - 독일 공화국 헌법 제21조, -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이다. 그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만 행동하며 어떠한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 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회의 본질적인 활동은 본회의의 공개 토의에서 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에서 하며, 더구나 그것은 의회의 위원회에 한정하지 않고 본질적인 결정은 오히려 프락션 지도자의 비밀회의에서, 또는 전적으로 국회 밖의 위원회에서 행하며, 그 결과 모든 책임의 전가와 회피가 일어나며, 그리하여 의회제도 전체는 마침내 당파들과 경제적 이리관계자의 지리를 의한 나쁜 일면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러한 의회제도의 민주적 기초에 대한 비단이 제기 되는데, 이 비판은 이미 19세기 중엽에 매우 비판적으로 감정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서구 문화의 오랜 고전적인 전통을 지닌 교양 있는 자의, 무교양한 대중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중정치(Demokratie)에 대한 공포이며 그 대표적인 나타남은 야곱 부르크하르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비판 대신에 당파들이 선거를 선전하며 대중을 조작하고 여론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과 아울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문헌의 표본으로서는 오스트로고 르스키의 근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당에 관한 저작이 있다. 벨록의 정당제도』(Belloc, Party System)는 정당정치에 대해서 통속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당정치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들, 특히 로베르트 미헬즈의 유명한 책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의회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환상을 타파한 것이다.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도 마침내 신문과 정당과 자본의 결합을 인정하게 되고 정치를 경제적 현실의 반영으로서 다루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헌들은 아마도 잘 알려진 것으로서 전제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의 연구의 과학적 관심은 이러한 문헌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에 있지 않고, 현대 의회제도의 최종적 핵심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데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지배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사상들로부터는 현대 의회주의의 체계적 기초가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가, 또한 이 제도가 도덕적이며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근저를 상실하고 단순히 공허한 기계로서 존재하며, 단순히 기계적인 타성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저절로 판명될 것이다. 개혁을 위한 제안들은 이러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의식하는 경우에만 전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의회와 관련을 가진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와 같은 개념들을 모두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이 일시적인 특징이나 표어인 것을 그치고, 또한 전술적·기술적 문제로부터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원리에까지 도달할 희망으로 가득 찬 출발이 다시 공허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기에 제국주의를 주장한다. 나에게 제국주의의 주장은 사회주의 실현의 전제이다. 내가 사회주의를 품고 있지 않다면 제국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제국주의를 내걸고 러일전쟁을 외치는 바 그 바탕에 사회주의의 이상이 있다.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제국주의자이다.